

北,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 최장 비행거리 약 330km...제원 분석 중 합참 “즉각 중단 촉구”·NSC “강한 우려”

북한이 10일 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발사체의 최장 비행거리는 약 330km로 탐지됐다. 추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 행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전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지난달 24일 이후 17일 만으로 올해 들어 10번째다.

청와대는 발사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열린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이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맹수열 기자

잠복결핵 검사결과 온라인 제공 병무청, 병역의무자 불편 해소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잠복결핵 양성을 판정받은 이들이 더 쉽게 검사결과 통보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10일 “병역판정검사 결과 잠복결핵 양성자에 대해 등기우편으로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 외에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잠복결핵 검사결과 통보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2017년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하고 있다. 잠복결핵 검사는 보통 2~3일 정도 걸려 신체검사 현장에서 검사 결과를 바로 알려줄 수 없다.

그 때문에 병무청은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교부해 왔다. 하지만 우편을 받지 못하거나 통보서를 분실할 경우 재발급을 요청, 다시 우편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검사결과 통보서를 지참해 보건소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치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병무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복결핵 검사 결과를 손쉽게 인터넷에서 출력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잠복결핵 검사 결과 통보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잠복결핵 치료율을 높여 결핵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 편집=김노형 기자

K1E1 전차 개량, 국내 연구개발로 진행 정경두 장관 주재 방추위서 화생방정찰차-Ⅱ 최초양산계획 등 확정

K1E1 전차의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한 6200억 원 규모의 성능개량 사업이 국내 연구개발로 진행된다. 화생방정찰차-Ⅱ와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의 최초양산계획도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10일 “정경두 장관 주재로 제12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K1E1 전차 성능개량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화생방정찰차-Ⅱ(차량형) 최초양산계획(안),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최초양산계획(안),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I-전투무선체계(TMMR) 체계개발기본계획(안) 및 최초양산계획(안),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I 3차 양산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1E1 전차 성능개량개발 사업은 노후한 K1E1 전차의 포수조준경 교체와 양압장치, 냉방장치, 보조전원 공급장치를 새로 장착해 전투효율성 제고와 장비 생존성 강화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내 연구개발이 결정된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6200억 원이며 사업기간

은 2021년부터 2038년까지다.

화생방정찰차-Ⅱ(차량형) 사업은 원거리 화학 자동경보기, 화학·생물학 자동탐지기, 방사능측정기 등을 장착해 화생방 오염지역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보·전파할 수 있는 차량형 화생방정찰차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는 이 사업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8200억 원을 들여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계약은 올 4분기 중 체결할 예정이다.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사업은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유도탄, 항공기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유도탄을 양산하는 사업으로 방추위는 이 사업에 7500억 원을 들여 올해부터 2036년까지 진행하는 한편 계약은 올 4분기 중 체결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는 통신기반체계(SPIDER)를 대체하고 대용량 정보 유통이 가능한 전술통신망을 구축하는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I 사업 관련 안건도 다뤄졌다. 방추위는 먼저 오는

2023년까지 5조3700억 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I 3차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약은 올 4분기 중 체결될 예정이다.

또 음성·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확보하는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I 전투무선체계(TMMR) 사업과 관련, 지난 방추위에서 의결된 사업추진 기본전략에 따라 협대역 무선방식을 추가 개발하는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I 전투무선체계(TMMR) 체계개발 기본계획(안)과 최초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는 1조40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다. 사업 계약은 내년 1분기 중 각각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장보고-Ⅱ와 장보고-Ⅲ급 잠수함에 탑재해 함정이나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중어뢰를 양산하는 중어뢰-Ⅱ 사업 최초양산계획(안)은 일부 계획을 보완해 재상정하기로 했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박재민 국방부 차관, 6·25전쟁 참전유공자 위문 박재민(왼쪽 둘째) 국방부 차관이 10일 추석을 앞두고 6·25전쟁 참전유공자인 이정인(오른쪽 둘째) 씨의 자택을 방문,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박 차관은 6·25전쟁 당시 여군으로 자원입대해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씨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한재호 기자

서울과기대, 국방과학기술연구센터 개소 국방 용·복합 실용기술 도출·개발... 군과 공동 연구도 수행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과기대)는 9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전문 연구기관 ‘국방과학기술연구센터(DIST: Defense Institute of Seoultech)’를 개소했다.

이날 김종호 과기대 총장 주관으로 열린 DIST 개소식에는 육군교육사령부(교육사) 최영철 사령관, 신인호 전투발전부장 등 육군 관계자와 초대 센터장을 맡은 과기대 장동영 기술경영융합대학장, DIST 오정일 국방협력팀장 등이 참석했다.

센터는 앞으로 국방 용·복합 과학 실용기술을 도출·개발·적용하고, 군·산·학·연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육군이 첨단 과학기술의 군사 분야 적용을 위해 교육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히말라야

프로젝트’에 우수한 교수진을 참여시켜 공동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DIST는 국방 용·복합 기술연구실, 국방정책연구실, 체계융합개념연구실 등 3개 실로 구성돼 정책적 연구와 운용 개념 연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통합 연구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개소식에서 최 교육사령관은 “DIST를 시발점으로 국방과학기술연구에 특화된 대학연구소가 더 많이 만들어져 대학 중심의 국방과학기술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윤 기자 ksy0609@dema.mil.kr

**병영에서 인터넷으로
국방미디어 즐기기**

국방일보 kdd.dema.mnd.mil
국방TV tv.dema.mnd.mil
국방FM radio.dema.mnd.mil